

21세기를 대비한 高等教育

—美國 高等教育의 개혁동향 [完]—

李 鉉 清

(캘리포니아 버클리大 高等教育研究所 客員研究員)

美國 高等教育의 개혁동향

1. 커리큘럼 改革과 7大 보고서
2. 敎養敎育과 敎師敎育
3. 21 세기를 대비한 高等教育

1. 緒 言

고등교육 개혁동향 (1), (2)에서 논의해 온 대로 '1990년대는 21세기의 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21세기를 준비하는 敎育改革에 착수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고등교육이 삶에서 '제 2의 교육' (second chance education)¹⁾으로 인식되고 국가발전에 직접 연관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고등교육의 改革에 대한 인식이 점점해 온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2000년 미국 교육전략' (America 2000 education strateg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고등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소위 'White paper'라는 보고서, 즉 '21세기 교육과 훈련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의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대개 21세기 고등교육의 새로운 골격을 정립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영국의 경우는 109개에 이르는 제안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敎育人口學的 推計에 의한 전망과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공동체의 경우도 통합유럽 교육전략의 일환인 ERASMUS와 같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80년대까지의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고등교육의 역할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봉합적 관념이었다고 본다면 '90년대의 고등교육에

1) '제 2의 교육'의 의미는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이라는 뜻 이외에도 직업전환이나 전직을 위해 필요한 2차 교육이라는 의미이다. 대학은 그 근본목적에서 중등교육까지의 기초교육을 토대로 한 '응용교육'이므로 '제 2의 교육'에 해당된다.

대한 인식은 '투자와 개혁', '관리행정으로부터 경영' (from administration to management)으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변혁기라고 여겨진다. 미국 고등교육 개혁동향(3)에서는 '21세기의 고등교육 변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서 고등교육의 기본방향과 기능을 점진해 온 것을 토대로 미국 고등교육의 경영과 지도력에 관련된 혁신적 대안을 중심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21 세기의 教育變動과 미국 高等教育

흔히 [교육변동(Educational Change)의 개념을 수용하려는 입장의 학자들은 대개 교육인구의 변동, 교육체제의 변동 그리고 교육기능의 변동 등을 주요 動因으로 삼아 教育變化를 설명하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인구의 변동에 관한 분석은 어떤 의미에서 21세기의 고등교육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설명요인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21세기에 대비하는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인구 변화와 교육체제 변동 및 교육기능 변동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教育人口 변화와 高等教育

교육인구에 관한 조망없이 10년 혹은 20년 이후의 고등교육이 어찌될 것이며, 대학인구의 특성이나 학생복지 그리고 교수의 충원 및 시설 투자 등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2000년 교육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① 유치원 교육인구가 증대한다는 점, ② 18~24세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등교육 인구는 증대한다는 점, ③ 교육관련 인구가 증대할 것이라는 점, ④ 교육예산이 증대할 것이라는 점, ⑤ 교육변동의 불가피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유아교육 인구가 현재 증대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상급학교의 진학률이 증대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18~24세의 대학 적령인

구가 감소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증대하리라는 점은 비정규학생과 고연령층의 대학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시점까지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출산율 감소가 지속된다면 결국 고등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출산율의 감소는 유아교육의 감소를 낳고, 자연적으로 상급학교 교육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며, 결국은 高等教育人口의 감소현상이 오리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변동이나 문화의 변화와 복합된 요인이므로 교육인구의 통계적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인구의 변화추세는 교육의 장기전망이나 정책수립에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경제수준이 7,000달러 이상이 되면 고등교육의 사회적 의미가 급속히 변화한다는 연구(Psacharopoulos, 1985, 1991)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도 그 본질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쨌든 미국 고등교육 인구 추계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18세에서 24세까지의 고등교육 적령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연령과 관계없이 실제의 고등교육 수험인구는 큰 변화가 없거나 증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러하겠지만 미국 고등교육의 경우도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따른 전학인구(transfer student)의 변동이 가장 커다란 고등교육 인구의 변화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볼 때 고등교육은 종래의 엘리트주의 교육관에서 탈피하게 되고, 현재의 대중고등교육(mass higher education)의 차원을 넘어 일반고등교육(general higher education)으로 전환될 것이다.²⁾

따라서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동향은 종래와 같이 高等教育의 改革에 있어서 '상식적' 개혁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3E'(efficiency, economy, effectiveness)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요청된다. 이때 물론 고등교육 인구의 안목있는 추계가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

2) 일반고등교육은 전 인구 중 50퍼센트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고등교육에 관여하고 참여한 메를 전제르 한 개념이다.

다.³⁾

고등교육 인구가 21 세기에 증대할 것인가, 아니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 인구의 특성이 어떠할 것이며 어떤 전공영역과 어떤 고등교육기관, 예컨대 전문대학, 특수대학 혹은 정규 4년제대학 중 어느 대학유형에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 인구가 수학할 것인가 등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조망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주요동향 중의 하나가 '경영하는 총장론'이나 '수요중심 고등교육체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엘리트중심 고등교육일 경우는 사회과학 영역에 관심이 많은 반면 대중고등교육적 상황에서는 응용과학과 응용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대중고등교육적 시대일지라도 국민소득 수준이 증대하여 직업의 분화와 직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기술영역에 관심이 증대하며, 국민소득이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산업구조상 기술인력(technician)이 엔지니어(engineer)보다 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듯이 전문대학이나 기술인 양성과 관련된 기술개발대학(Technical careers)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된다.⁴⁾

교육인구 변화는 고등교육 인구 전체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각 고등교육기관 내에서의 인구분포, 그리고 國際大學間 協力體系內에서의 유동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특히 세계인구가 증대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고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국가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에 비해 커다란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적 고등교육(institutionalized higher education)은 선진·중진국에 국한되어 확충될 것이지만, 비정규적 고등교육은 경제·사회 발전의 수준에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적 과제는 고등교육 인구 추계와 고등교육 경영 및 지도력에 관

심을 쏟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구 변화에 따른 미국 고등교육의 변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① 고등교육 인구의 국가간 이동 증대
- ② 학부학생 평균연령의 고령화
- ③ 교수풀제(faculty pool)의 가능성 증대
- ④ 교육시설 합동화 현상의 출현
- ⑤ 전·입학 학생의 증대와 정원자율화 증대
- ⑥ 시간제 학생의 증대
- ⑦ 강의교수제, 연구교수제의 분리 가능성 증대와 예비교수제의 신설 가능성
- ⑧ 고등교육망(higher education network)체계의 운용
- ⑨ 산학협동체계의 확충과 이동대학제의 도입
- ⑩ 전공영역별, 단과대학별 예산독립의 가능성 증대
- ⑪ 대학시설의 24 시간 운영체 활성화
- ⑫ 국제학위제도의 도입
- ⑬ 특수입학(special admission)제도와 특별학위제(special diploma)의 보편화
- ⑭ 무학년 무소속(non-grade/non-affiliation)제도의 도입가능성

교육인구 변화는 고등교육의 役割과 機能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 인구 변화를 고등교육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高等教育機關이나 專攻領域을 多樣化함으로써 인구의 변동을 유도할 수 있고 국가간의 고등교육 인구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어쨌든 敎育에서의 고객개념(client concept)을 감안할 경우에도 올바른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교육인구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즉, 직업분화 속도와 대학인구 변동이 대학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동향은 크게 두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고객중심개혁(client-centered reform), 다른 하나는

3) Thomas S. Popkewitz, *A Political Sociology of Educational Reform*(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91), pp.1~12.

4) Hany G. Miller,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unpublished conference paper, The INNOTECH World Conference(Manila, 1987).

효율중심개혁(efficiency-based reform)이 그것이다. 고객중심이나 효율중심 개혁 모두 고등교육 인구 변동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敎育體制의 변동과 高等教育

교육개혁을 논할 때 대개의 경우는 교육개혁(educational reform)이라는 용어와 교육변동(educational change)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활용하려 한다.⁵⁾

여기서 교육체제의 변동은 전통적인 고등교육체제(system)와 체제(structure)의 변화를 포괄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흔히 교육개혁이라고 쓰는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흔히 고등교육체제변동은 非고등교육체제→정규고등교육체제→비정규/정규고등교육체제의 형태로 전환되어 왔다. 이때 교육체제 변동의 의미는 정규와 비정규 고등교육체제 간의 균형 문제로 귀착된다. 대개는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동향도 세 가지 형태의 고등교육 체제변동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 정규 고등교육체제의 강화형태이다. 이러한 교육체제는 엘리트 중심의 고등교육관과 부합되는 것으로, 대개 인문·사회과학 부문만을 강화하려는 소규모 단과대학의 경우이다. 또한 자격증 위주의 단과대학 형태의 의과대학, 신학대학, 기초과학대학, 그리고 여자대학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21세기의 고등교육 중 이러한 형태의 교육체제 변동이 증가하리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 3,000명 내외의 liberal art college나 medical college 또는 해부학대학, 안과대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는 비정규 고등교육체제의 확대형태로서 정규 대학체제에 비정규 대학형태의 체제를 확충해 가는 변동을 지적할 수 있다. 비정규 대학체제의 강화는 세계 각국의 불가피한 추세이며, 많은 대학들의 경우 재정압박 해소책의 일환으로서 교육체제의 변동을 시도하고 있다. 非正規大學體制 형태의 경우 정규 커리큘럼내에 비정

규적 커리큘럼과 연계하려는 체제로부터 전통적 대학체제와 대응하는 비전통적 대학체제로 운영하는 것들이 이러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예컨대 大學擴充 프로그램(university extension), 하계대학(summer college), 위성대학 프로그램(satellite program) 그리고 단기연구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21세기 고등교육 형태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정규와 비정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 개혁동향에서 소위 일류대학일수록 이러한 변화에 민감한 편이어서 하버드대학의 경우 '총장강좌'(university president program)라든지 비클리대학의 '해외대학 경영자 단기강좌', 브라운대학의 '해외연계 프로그램', MIT대학의 '스폰서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비정규 대학체제 운영형태이다.

셋째는 완전한 비정규 고등교육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소위 '대학 밖 대학'(college out of colleges) 형태이다. 대개 '社員大學'이나 '기술대학', 특수목적의 자격증중심대학들이 이에 속하는데 회사부설연구소에 설치된 단일 전공중심의 고등교육체제이다. 예컨대 근래의 IBM, AT & T, GM 등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21세기에는 이러한 고등교육 형태가 증가할 것인데 대개의 경우는 단일 전공, 단일 장소, 단일 커리큘럼 등의 '3S'(single major, single classroom, single solid curriculum)의 특성을 지닐 것이다.

21세기 교육체제 변동의 두드러진 특성은 전통적 고등교육체제의 확대와 비전통적 고등교육체제의 확대라는 이중적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전통적 고등교육체제는 양적으로 증대하는 반면,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형태의 전통적 고등교육체제는 숫자 면에서 감소할 것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도 21세기의 고등교육 추이에 의존할 것이

5) 'change'가 보다 과학적·비규범적인 개념이라면 'reform'은 공적이고 권력과 관련된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교육체제의 변동은 전통과 전환(transformation)이 어떻게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과정에 연루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고, 이러한 추이는 교육인구, 교육체계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은 점진적 개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호에 언급한 대로 혁신적 체제의 개혁보다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는 '過程的 改革'이 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3) 教育機能 변동과 高等教育

교육기능, 특히 고등교육의 기능은 일반교육이 그러하듯 ① 문화창조 및 전달의 기능, ② 선발 및 분배의 기능, ③ 진보와 혁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1세기의 고등교육은 문화창조의 기능보다는 문화전달의 기능이 강조될 것이며, 선발의 기능보다는 분배의 기능이 중요시될 것이다. 또한 진보와 혁신의 기능이 어느 기능보다 중요시될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교육기능이 문화전달의 기능, 분배의 기능, 그리고 혁신의 기능으로 집약될 것인데 고등교육의 사회적 의미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육기능이 선발중심인 사회에서는 입시나 학생선발 등의 고등교육기능이 중요시되지만, 21세기의 전망은 분배의 기능이 강조될 것이므로 개방입시체제(open access system)로 전환되며 졸업이 좀더 직업세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실질적 경험 위주의 자격중심졸업(competency based diploma)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사회화의 기능이나 문화적 기능의 경우도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한 원자화·개별화·脫집단화 경향 때문에 고유성이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보편화하게 된다. 이때 고등교육의 문화적 기능은 이러한 개별화·국지화된 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문화전달의 기능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제화 경향에 따른 多文化 傾向과 함께 이러한 문화를 취사선택하는 문화의 타국화 현상도 두드러질 것이므로 고등교육의 역할은 문화적민지주의 성향을 탈피하기 위한 자국문화 전달기능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추세도 선별적 문화전달기능에 기초할 것이다. 즉, 교육기능의 이러한 변화경향은 [자연히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을 수반할 것이며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 ① 다문화교육과 문화자국화 성향
- ② 문화상대주의와 지식의 자국화(nationalization of knowledge) 성향
- ③ 교양교육의 강화 성향과 문화커리큘럼(cultural curriculum)의 등장
- ④ 입학자유화와 졸업자유화제도 도입
- ⑤ 공동입학제(pool admission system)와 단위졸업제(unit graduate system)의 도입
- ⑥ 경영적 지도자론의 강화
- ⑦ 자국적 재정자립책 확대
- ⑧ 공동교육자원개발제 도입
- ⑨ 협동총장제 도입
- ⑩ 복합커리큘럼제의 도입

이러한 개혁은 미국 대학교육의 방향이나 그 내용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뜻하며, 비록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교육변동과 사회변동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개혁동향이라 할 수 있다.

4) 教育指導者 역할 변화와 高等教育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경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도자들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건강, 재산업화, 범죄, 인종, 성, 정치적 참여 그리고 전통적 가족가치의 회복 등에 관한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대학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대학 지도자들도 중매의 상아탑적인 사고나 행정형태에서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치유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변화된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즉, 고등교육 지도자들의 역할은 봉사과 교수 및 연구라는 중매의 대학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까지 부여받게 되었다.

교육지도자 역할은 행정가에서 경영자로, 제공사에서 구제자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과 봉사의 역할은 연구활동의 신장을 위한 연구비 조달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의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대학자체의 소비자적 풍토(consumerist culture)를 개선시키는 역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고등교육 지도자들의 역할은 다음 몇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고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도 운영관리자의 개혁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① 행정가적 역할로부터 경영자적 역할로의 변화
- ② 감독자적 역할로부터 조정자의 역할로의 변화
- ③ 예산관리자의 역할로부터 예산확보자의 역할로의 변화
- ④ 대학경영 우선순위에 입각한 상황적 지도자론의 대두
- ⑤ 경제교육지도자로서의 역할 대두
- ⑥ 학생과 교수 복지증진에 대한 역할 증대
- ⑦ Outreach 사명의 증대

따라서 이러한 교육지도자의 역할 변동은 고등교육기관의 변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래 행정이론의 추세가 '경제'와 '책무성'(economy & accountability)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행정가로서의 역할보다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총장이나 고등교육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조직풍토(organizational culture)의 조정과 개선 책임자로서의 역할과도 부합된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고등교육 개혁도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結 言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은 세계 여러 나라와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특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제도적 유연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합적 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과정과 내용적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은 앞서도 언급된 대로 커리큘럼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탁월성과 학습자

들의 교육욕구에 부합시키려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제도적 폐쇄성 간의 이중적 갈등은 교육지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過程과 課程의 변혁추구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制度的 補完을 위한 네트워킹(networking)의 파제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프로그램과 다양한 유형의 커리큘럼, 그리고 비제도의 제도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⁶⁾

결과적으로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형태의 연구나 검증을 토대로 이루어져 온 게 사실이다.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기본가정들을 다시 요약·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①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은 그 근본 골격에 있어 커리큘럼의 개혁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주요 영역은 고등교육에서의 인간화를 위한 人文敎養敎育에 두고 있으며, 고등교육 이전 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敎師敎育의 개혁에 두고 있다.
- ③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또 다른 영역은 基礎科學敎育의 강화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과학 공통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산학협동프로그램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몇 개 대학간의 연계체제도 주요한 개혁동향이라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高等教育指導者論을 강조하고 있다. 즉, 행정가보다 경영자로서의 총장, 관료로서의 총장보다는 촉매자(facilitator)로서의 총장론이 주요 개혁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5L', 즉 지도자(leader), 미래의 조망자(looker), 연구하며 개혁하는 자(learner), 협조조정자(linker), 그리고 대의협력자(liner)로 제시될 수 있다.

⑤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는 대학 예산확보와 재정적 능력의 확보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대학교육관

6) '비제도의 제도화'는 고등교육기관 이외의 프로그램은 제도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다양한 형태의 大學과 大學外의 協同課程을 의미한다.

의 개혁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대학교육 기능이나 교육관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즉, 대학 二元化의 이상을 제안할 수 있다. 大學의 二元化란 基礎教育과 應用教育으로의 이분화를 의미한다.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흐름의 하나는 이러한 기초교육을 강화시키되 이에 따른 예산은 기존의 재정원에 의존하려는 것이며, 응용교육분야는 大學 以外の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예산 감소의 문제는 이를 보완하려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개혁내용은 예산절감책과 예산확보책의 두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예산절감책으로는 유사학과의 통·폐합, 유사과목의 공통설강, 합동강의제, 격년제 강의 및 대단위강의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예산확보책으로는 기부금제도의 활성화, 산

학협동의 신장, 수업료의 인상, 그리고 행정예산의 감축 등을 들 수 있다.

⑥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또 다른 영역은 입학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동향은 다양한 형태의 선발기제를 활용하려는 것과 비전통적 학생(non traditional student)에 대한 입학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이미 설명한 대로 '개방입학체제'로의 전환이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은 여러 단체들과 각 지역별 대학교육협의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연방정부의 교육관련 단체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특히 미국 고등교육의 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21세기 대비교육'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곧 국제경쟁력의 신장에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은 '제2의 교육'이자 '예비교육'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